



농업회사법인 우후-아사카시 농업투자 협약체결

군산시-우즈벡, 농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시찰단, 안디잔주 방문해 협력 도모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의 농업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를 방문해 농업제약에 대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김병래 소장을 단장으로 한 군산시와 우즈베키스탄 농업교류 국외시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를 방문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군산시와 안디잔주가 농업정책, 농업기술, 농업교육 등 농업 제반 분야에 대해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31일 군산시와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시장 엘진 콘)

가 농업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업교류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군산시와 안디잔주가 상호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찰단 일행은 방문 기간에 안디잔주지사와의 면담 및 업무협약체결, 아사카시청 방문, 토마토재배 시찰하우스 견학, 안디잔주 농업대학 방문, 유가공회사 방문, KOPIA 방문 등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농업시설과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농업발전 기술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농업분야 교류 추진 ▲농업정책, 농업기술, 농업인 전문교육 등 단계적 확대추진 ▲농업혁신 적극 협조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 군산=봉채영 기자

“세계수영대회 관광 특수 잡아라”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예매 시작
당일코스 8개·1박2일 코스 2개 구성
관광지·맛집 소개 홍보 부스 운영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전남을 찾는 임원·선수과 가족, 국내외 관람객을 위해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10개 코스의 인터넷 및 현장 예매를 시작,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새롭게 선보이는 남도한바퀴 특별상품은 박물관 여행, 생태관광 투어, 힐링&남도별미,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행, 아름다운 정원 등을 테마로 하고 있다. 당일코스 8개, 1박2일 코스 2개다.

운영 기간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15~28일과, 마스터선수권대회 기간인 8월 5~16일이다.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운행 코스는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 선수촌을 경유해 각 코스별로 떠난다. 당일상품의 경우 ▲박물관 여행은 국립광주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전남농업박물관 ▲생태관광 투어는 죽녹원~녹차밭~제암산자연휴양림/소쇄원~무안회산

백련지~분청사기전시관 ▲힐링&남도별미는 축령산편백숲~장성담미락단지길~필암서원/섬진강길~순천만습지/편백숲우드랜드~토요시장~보림사/대흥사 장충숲길~통닭거리~녹우당/고흥 분청문화박물관~나로도항, 축섬 등이다.

1박 2일 상품인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행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나주 곶감거리~불회사~고인돌유적지~송광사~선암사~대흥사~녹우당 ▲아름다운 정원 여행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소쇄원~목포 해양유물전시관~갯바위공원, 평화광장~강진 백운동별서정원~보성 녹차밭~순천만국가정원으로 구성됐다.

특별상품 이용 요금은 당일 코스 9900~1만 6900원이며, 1박2일 코스는 6만 9000원이다. 세부 코스별 이용 금

액, 탑승 정보, 예약 문의 등은 남도한바퀴 누리집과 금호고속 상담센터에 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전남 관광지와 맛집 등을 소개하기 위해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교에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8월 7~8일 시·도의 날 ‘전남 홍보관’을 운영해 도립국악단의 남도민요와 사물놀이 공연 등 남도의 멋과 흥을 알리는 문화·예술을 소개한다.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과 선수촌, 공항, 역, 터미널, 호텔 등 다중 집합장소에 외국어(영·중·일본어) 관광홍보 지도 및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전남을 여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광주수영선수권대회는 남도의 천혜 관광자원인 섬과 갯벌, 사찰, 음식,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 등 관광상품을 국내외 방문객에게 알리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도한바퀴 특별상품 등 매력적 관광콘텐츠를 갖춘 여행상품을 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관광전남’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광주 시내버스, 전 노선에 무료 와이파이

오늘부터 공공 와이파이 시범운영
수영대회 성공개최 지원 위해 앞장거



5일부터 광주 시내버스 전 노선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101개 노선 1044대(예비버스 포함) 모든 시내버스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6600만원으로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주)케이티를 사업자로 선정, 국비와 시비 1대 1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이었지만 12일부터 열리는 국가적인 행사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회 시작 전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조기 구축했다.

이는 광주를 찾는 해외 선수단, 취재

진,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 속에 스며든 ICT서비스 환경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버스 탑승 후 휴대기기 와이파이 설정에서 통신사, 기종에 관계없이 ‘PublicWifi@Bus_Free_0000’이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해 접속하면 된다. 여기서 ‘0000’은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진해육대부지, 창원형 실리콘밸리로 재탄생

창원시, 여좌지구 ‘첨단연구단지’로
내년 준공... 2028년 기관 입주 완료



진해 연구자유지역 재료연구소.

창원시는 2014년 해군으로부터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인수받은 28만1025㎡ 규모의 여좌지구(진해육대부지)를 연구-생산-주거-행정이 아우러진 ‘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청사 소재지, 야구장, 대학 등 여러 용도로 검토되어 온 육대부지는 최종적으로 첨단연구단지로 개발이 확정되고 입주기관들이 속속 정해졌다.

시는 모든 기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8년에 2250여명의 고급연구인력, 청년창업자들이 연구역량을 키우고 창업의 꿈을 펼치는 창원형 실리콘밸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020년 준공되는 진해육대부지에는 현재 5개의 기관의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3개 기관의 유치가 예정돼 있다.

유치 확정 시설로는 재료연구소 진해센터(가칭), 국방과학연구소 첨단합정연구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

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등이 있다.

유치 예정 시설로는 방위산업진흥원, 해양로봇융합시험센터, k-yard 개발사업 등이 있다.

가장 먼저 입주가 확정된 기관은 재료연구소다.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는 그간 본소의 부지만으로 외연 확장이 절실했다.

시는 이번 재료연구소의 진해센터 확대·유치로 국책연구기관의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수도권으로 쏠린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역으로 유치해 지역의

연구역량함양을 증대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등이 입주를 확정된 상태다.

2018년도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두 사업은 75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전액 국비,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는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창업기업 100여개사, 시제품제작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류광현 기자 news24@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6 | 해질 / 19:57

7월 5일 (금) 음력 : 6월 3일

수도권 날씨 33~2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8/33, 동두천 18/33, 가평 17/33, 양평 19/33, 용인 21/32, 평택 19/33, 수원 21/33, 인천 22/30, 파주 19/32, 백령도 19/26, 서울 21/3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익산시,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익산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최장 6년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용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휴먼시아 등 국민임대아파트 지원물량은 종료됐지만 영구임대

아파트(익산부송1주공아파트, 동산주공아파트) 12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전 익산시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장기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익산=봉채영 기자